

여름 무더위 탈출, 고흥으로 오세요

서핑 명소 남열해돋이 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12곳 일제 개장



고흥 남열해돋이 해수욕장을 찾은 서퍼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다. <고흥군 제공>

“최고의 여름철 피서지 고흥으로오세요.” 서핑마니아들 사이에 입소문이 자자한 ‘남열해돋이 해수욕장’을 비롯해 고흥지역 12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했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최고의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곳 해수욕장들은 몸을 출렁이게 만드는 파도, 맨발로 뛰어가고 싶은 깨끗한 백사장,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울창한 소나무 숲 등 여름피서객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다. 지난 13일 남열해돋이 해수욕장 외에도 익금과 발포, 나로우주, 대전, 풍류, 덕흥, 염포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으며 연소와 금장 해수욕장, 소록도 해수욕장까지 손님 맞이에 나섰다. 해수욕장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

터 오후 5~6시이다. 군은 앞서 해수사위장, 음수대, 화장실 등의 해변 편의 시설을 정비하고 소나무 숲 사이에 원두막과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12개 해수욕장에 총 86명의 수상안전요원도 고정 배치했다. 여수해양경찰서와의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몸을 출렁이게 만드는 파도와 맨발로 뛰어가고 싶은 깨끗한 백사장, 그리고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울창한 소나무 숲까지 무더운 여름 시원한 휴식을 선사해 줄 고흥군 해수욕장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지난 13일 곡성군 관계자들이 고달면 두계리를 찾아 곡성맛담 ‘섬진강 다슬기 정식’ 편을 진행했다. <곡성군 제공>

콩수제비·하지감자... 18·20일 ‘곡성맛담’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는 20일까지 향토음식의 관광 자원화와 전통 식문화 계승 활동인 ‘곡성맛담’을 진행한다. 16일 밝혔다. 향토음식과 솜씨 보유자를 발굴해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하기 위한 ‘곡성맛담’은 음식뿐만 아니라 같이하는 사람의 웃음과 표정, 식사하며 나누는 이야기, 그 장소의 햇살과 바람, 날씨, 음식에 담긴 추억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에 대한 그리움까지 담고 있다. 군은 지난해 함께 탕과 청국장 등 가을 음식을 선보였고, 올해는 2년차로 다슬기, 하지감자 등 여름음식을 주제로 선정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올해 곡성맛담 첫번째 이야기는 고달면 두계리에서 ‘섬진강 다슬기 정식’편으로 진행됐다. 오는 18일에는 곡성을 동마리에서 ‘콩수제비’, 20일에는 고달면 목동리에서 ‘하지감자’편을 이어간다. 곡성군 관계자는 “향토음식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 이야기들도 함께 채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우리 지역과 연계한 관광콘텐츠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는 20일까지 향토음식의 관광 자원화와 전통 식문화 계승 활동인 ‘곡성맛담’을 진행한다. 16일 밝혔다. 향토음식과 솜씨 보유자를 발굴해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하기 위한 ‘곡성맛담’은 음식뿐만 아니라 같이하는 사람의 웃음과 표정, 식사하며 나누는 이야기, 그 장소의 햇살과 바람, 날씨, 음식에 담긴 추억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에 대한 그리움까지 담고 있다. 군은 지난해 함께 탕과 청국장 등 가을 음식을 선보였고, 올해는 2년차로 다슬기, 하지감자 등 여름음식을 주제로 선정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올해 곡성맛담 첫번째 이야기는 고달면 두계리에서 ‘섬진강 다슬기 정식’편으로 진행됐다. 오는 18일에는 곡성을 동마리에서 ‘콩수제비’, 20일에는 고달면 목동리에서 ‘하지감자’편을 이어간다. 곡성군 관계자는 “향토음식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 이야기들도 함께 채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우리 지역과 연계한 관광콘텐츠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고흥군 전통시장 청년 CEO창업몰 조성

행안부 공모 선정...9억원 들여 일자리 인프라 사업

고흥군이 전통시장 유희 부지를 활용한 ‘고흥 청년 CEO창업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018년 9월부터 2019년까지 총 9억원(국비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사업을 진

행한다. 고흥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에게 청년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점포 및 창업교

육공간 등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청년 CEO창업

몰 조성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성공 발판마련과 창업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흥을 청년창업의 메카로 만들 본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빨배 레이싱·보물 찾기...갯벌 즐겨요

28일 벌교 장양리 어촌체험마을서 레저 빨배대회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오는 28일 벌교읍 장양리 어촌체험마을에서 ‘제5회 벌교갯벌 레저 빨배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레저 빨배대회는 보성의 대표적 특산물인 벌교 꼬막을 캐기 위한 이동 수단이었던 빨배를 지난 2010년 레포츠 장비로 개발해 갯벌에서 빨배 레이싱을 즐기는 행사다. 벌교갯벌 레저 빨배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보성군이 후원한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벌교 천상갯벌’을 주제로 개막식에 이어 레저 빨배대회와 갯벌 달리기 대회가 초·중·고, 대학·일반부,

단체전 등으로 구분해 펼쳐지며 부대행사로 마드 씨름대회와 청소년 댄스대회가 열린다. 또 갯벌 속 보물찾기와 갯벌 생물 잡기 체험, 빨배 제작과정 시연 등 체험행사와 갯벌생태 사진, 전통 빨배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된다. 참여신청은 보성군 홈페이지나 해양수산과로 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국가 중요어업유산인 빨배를 이용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지난해 열린 갯벌 레저 빨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빨배 경주를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구례군 청소년 상담전화 친절도 전남 22개 센터중 1위 전국 228개 센터 조사

구례군이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실시한 청소년 전용 상담전화 1388 친절도 조사 모니터링 결과 전남 지역 1위를 차지했다. 16일 구례군에 따르면 전국 228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친절도 조사 평가는 전국적으로 불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최초의 수신상태 및 상담진행, 상담조치 및 적극성, 끝맺음 인사 등 10가지 항목을 3차례에 걸쳐 세부적으로 평가했다. 1388 청소년 상담전화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2014년 10월 개소 이후 상담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번 전화 친절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전남도 22개 시·군 센터 중 1위를 기록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

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적인 상담과 CYS-Net(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을 통하여 청소년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 오지리 6구마을 경관 개선 설명회

곡성군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 11일 군의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의 입구에 자리 잡은 오곡면 오지리 6구 마을을 찾아 오지리 6구 마을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섬진강기차마을 진출입로인 오지리 6구 마을에 벽화 및 조형물 등을 통해 경관을 개선하고 곡성군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경관 개선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디자인 안을 확정하고 주민 동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오지리 6구 마을 경관개선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곡성을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 낙동원 추억의낭만거리 간판개선사업, 학정천장미로드 야간경관조성사업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사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구례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구례군은 2017년 하반기 동안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137세대에 총 218만원 상당의 인센티브(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을 계산해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는 지난 2년간의 월평균 에

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연간 전기는 최대 4만원, 상수도는 최대 6000원, 도시가스는 최대 2만4000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연 2회(6월·12월) 지급하며 연간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거나 구례군청 서민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7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20만원에 매매 됨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